

쫄깃쫄깃 꼬막 맛보고 태백산맥 문학기행

31일부터 벌교 꼬막축제

콘서트·공연·널배타기...

사흘간 다채로운 행사

제철을 맞은 꼬막의 쫄깃쫄깃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벌교에서 열린다.

보성군과 벌교 꼬막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강복수)는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벌교 해변 특설무대와 대표리 갯벌 일원에서 '벌교 꼬막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꼬막 맛 따라 태백산맥 문학기행을 벌교에서'를 주제로 벌교읍민의 화합을 다지는 읍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 소설 '태백산맥'을 알리는 문학기행 등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을 관광객을 맞는다.

첫날인 31일에는 별신제 민속보존회 길놀이 시가행진을 시작으로 도전 기네스



올해로 13회를 맞는 '벌교 꼬막축제'가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벌교 해변 특설무대 등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축제 프로그램 중 꼬막끼기 경연대회 모습. <보성군 제공>

1000인분의 대형 꼬막비빔밥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화합을 다진다. 또 꼬막 천하장사 씨름대회와 민속웃놀이, 꼬막노래자랑, 꼬막퀴즈·무게 맞추기, 7080 가족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둘째 날인 11월 1일에는 지역동아리와

채동선 합창단·채동선 실내악단 공연과 함께 꼬막 던지기, 꼬막무게 맞추기, 꼬막끼기 경연, 뷔페달린 널배타기 대회 등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

마지막 날인 11월 2일에는 소학교에서 벌교읍민의 화합을 다지는 어울제 '벌교

흔! 벌교인! 그리고 어울제'가 펼쳐진다. 태백산맥 문학기행과 태백산맥 OX퀴즈, 청소년 K-POP 경연대회, 불꽃 쇼를 즐길 수 있으며, 대표리 일원에서는 갯벌 허리줄다리기와 꼬막잡기, 널배타기 등 이색 갯벌체험 행사가 이어진다.

전해의 여자만 정정갯벌에서 채취한 벌교꼬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전국 1호로 예로부터 궁중 진상품으로 유명하다. 특히 '헤모글로빈' 성분이 많이 함유돼 노약자나 산모들에게 특효식품으로, 어린이 성장발육촉진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덕분에 전국적으로 더욱 유명해진 벌교꼬막은 벌교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가 됐다.

강복수 벌교꼬막축제 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군민들의 화합을 이루고, 지역의 문화와 특산물인 꼬막을 널리 홍보해, 문학기행 일반자인 벌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



보성 제암산에 어드벤처 체험단지 제암산 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어드벤처 시설을 찾아 '짚라인'(Zipline=양쪽 지주대 사이에 와이어를 설치하고 도르래를 타고 내려오는 이동수단)을 체험하고 있다. 보성군은 사업비 270억원을 들여 어드벤처 및 짚라인 시설을 갖춘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11월중 개장할 예정이다. /보성=김윤성기자 kyb@

보성 벌교 중앙초 학생-학부모 함께하는 야영 행사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가 함께 야영하며 소통하는 행사가 마련돼 화제다.

보성 벌교 중앙초등학교(교장 박종인)는 지난 17일 교내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즐거움 야영' 행사를 열었다.

'소통을 통한 따뜻한 이해'를 주제로 마련된 이날 야영 활동은 삼겹살 파티와 레크리에이션, 퀴즈대회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스스로 결정해서 참여하는 실천체험 위주로 꾸며졌다.

행사에 참여한 오종수(5학년)군은 "모처럼 가족들과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퀴즈대회에서 많은 상품을 타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종인 교장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하고 싶은 말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어린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장(場)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

2020년 곡성은 인구 3만, 친환경 농임업 도시

군관리계획 장기발전 전략 수립 재정비안 공청회

'곡성군의 2020년 모습은 어떨까'

곡성군이 미래 공간구조 정립과 특성화된 장기발전 전략수립 등을 위해 '2020년 곡성군관리계획 재정비(안)'를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목표년도인 2020년의 계획인구는 3만명이고, 구역은 곡성군 행정구역 전체 면적 548.42㎢이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곡성군의 자족성을 높이고 인구의 유출감소, 특화기능을 살리기 위해 미래상을 '친환경 미래 농임업 육성도시', '자연생태 관광도시', '주민화합 도시'로 설정해 기존 곡성·석곡·옥과 3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도심·2지역중심·특화핵(核)'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곡성 생활권, 옥과 생활권, 석곡 생활권의 3개 권역으로 생활권을 설정해 발전방향과 인구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토지이용 계획은 저탄소 토지이용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권역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 방지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생활권별 발전방향으로는 '곡성 생활

권'은 도심기능 활성화와 관광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옥과~곡성간 연타기능 강화를 위한 삼기면을 개발유도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곡성읍 도심기능 활성화와 가차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 지역으로 육성토록 했다.

'옥과생활권'은 옥과~곡성간 연타기능 강화를 위해 겸면지역을 개발유도하고, 기반시설 확충, 국도 13호선을 중심으로 광주 근교권 선도산업 배후지역으로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기능 강화 및 교육문화환경조성, 심정 호(孝)문화센터~옥과향교~옥과미술관~유령로 역사촌을 연계한 호(孝)문화축을 구성하며 산업·교육중심도시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곡 생활권'은 깨끗한 자연·생태·관광거점 육성을 위해 석곡지역 중심강화와 고품격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 치유산업기능 도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공청회 이후 군민 의견수렴과 군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전남도의 승인을 받아 '2020년 곡성군관리계획 재정비(안)'를 고시할 예정이다.

/곡성=김계정기자 kjkim@



명창 꿈나무 48명 쑥대머리 한가락

보성교육청 학생 판소리 경연대회

'판소리 꿈나무'들의 경연무대가 보성에서 펼쳐졌다. <사진>

보성 교육지원청(교육장 윤남순) 주최로 지난 15일 열린 '제 14회 보성 학생판소리 경연대회'에는 초·중학생 48명이 참여해 갈고 뒤는 기량을 겨뤘다.

경연 결과 초등부 최우수상은 ▲저학년부 조성남초등학교이주연(사랑가) ▲중학년부 벌교 중앙초등학교 전술비(놀부 심술부리는 대목) ▲고학년부 낙성초등학교 고은서(쑥대머리)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또 중등부 최우수상은 보성여중 방가인(심청가 집이라고야)이 수상했고, 단체부 최우수상은 회천초등학교 김지민·변성

진·김민수(홍보가 가난타령)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자랑할 수 있어서 매우 즐겁고 흥겨운 시간이었다"며 "우리 소리를 더 열심히 연습해서 보성을 빛내는 명창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남순 교육장은 "보성은 '서편제' 장시자인 박유전 선생을 비롯해 정응민 선생의 대를 이어 국장 조상현 선생을 비롯한 명창들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고장"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보성 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보성=김윤성기자 kyb@

고흥군 농어촌개발 예산 120억원 확보

농림부 공모사업 6건 선정

고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2015년 농·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6건을 통해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모사업은 ▲도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60억원) ▲금산면 산평면역 종합 정비사업(40억원) ▲청석마을 종합 개발사업(10억원) ▲고흥읍 장수제지구 경관조성사업(5억원) ▲포두면 봉암마을 공동문화사업(5억원) ▲고흥군 지역역량 강화사업(5000만원) 등 6건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

으로 시행하게 된다

군은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비전 5000 프로젝트'와 '참고흥 새마을 실현 운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 왔다.

군은 주민 문화복지시설 확대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확보해 한 단계 높은 군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도·농·어촌간 생활문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소득창출과 직결되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j@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임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막,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동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월계동 4층 17억(보2.2억 월850만)
- 상가주막,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옥,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4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상가 신축 용지
- 창고/공장 용지
- 전원주택용지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새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급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공장부지 “땅” 급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8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